

**2023 년 9 월 24 일 “(그리스도 예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구주”(마 16:21-23)**

예수님은 그리스도(16:16)는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살아나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1] 고난의 그리스도**

베드로는 자신이 고백한 그리스도가 민족의 정치적 리더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유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늘 제국의 식민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주 메시아란 정치적 해방자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대들었다’ - (원어) ‘비난하다 꾸짖다’

이에 예수님은 단호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며 응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리 엄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 인간의 고난과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2]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 천국가게 하시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지면을 통해 하나님은 자녀 된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자 하시며 성장시키십니다.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그 분의 멍에 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쌓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난 받고 고통 당하며, 혼란과 좌절이 깊은 자리에서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면, 것처럼 진정한 신뢰는 어디서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이 신뢰의 선택으로 인해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인도해줍니다.

**[3]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기 위하여**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는 100%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선택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죽음으로 들어오셔서 아버지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길입니다.

히 2:9-10 “예수께서 ...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공감해주시고 동정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한 동정을 넘어 귀한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도가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할 때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친히 보여주시며, 그 결과의 영광스러움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러한 그리스도 되심의 핵심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죽음 속에 열린 진정한 신뢰의 길을 선택하는 영적 여정이 이루어지길 축원드립니다.

**<나눔의 질문>**

1.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중하셨던(23 절)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2. 나는 고난 속에서 주로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했던 영적 체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